

祝 辭

2017. 9. 13. (수)

동대문 Design Plaza 알림1관

금 용 감 독 원
원 장 최 홍 식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최홍식입니다.

먼저,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
그리고 금융협회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봉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박람회를 찾아주신 청년구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금융권의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청년실업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 ('12) 7.5% → ('13) 8.0% → ('14) 9.0% → ('15) 9.2% → ('16) 9.8% → ('17.7) 9.3%
(통계청 고용동향 중 15~29세 청년층 실업률, '17.8.9. 발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세대가 일할 기회나 근로 경험을 얻지 못하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면 실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핵심 국정운영 과제로 삼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우리 금융권 모두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 당부

우리 금융산업은 약 77만여 개('17.7월말 기준)*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통계청 고용동향)

또한, 실물부문에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따라 금융과 IT기술이 접목된 '핀테크'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오프라인 점포가 축소*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 점포수(개) : ('14) 7,449 → ('15) 7,329 → ('16) 7,150

더욱이, 기업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해 온 우리 금융산업이 근래 가계대출과 같은 소비적 금융에 치중해 본연의 생산적 자금중개 역할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 대출(가계+기업) 중 기업대출 비중 추이 : ('14) 56% → ('15) 54% → ('16) 52%

이제는 우리 금융산업이
생산적·혁신적 부문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시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핀테크가 비단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축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들어 새로이 출범한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백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17.6월말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 직원(정규직+기간제)수 : 537명
(카카오뱅크 : 301명, K뱅크 : 236명)

저희 금융감독원도
우리 금융산업이 생산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활발한 금융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금융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다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
금융의 국제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교류*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울 국제금융컨퍼런스('17.9월말),
해외 금융감독당국 초청 세미나('17.9월말),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초청 세미나('17.10월),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17.11월),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17.12월) 등

IV 맺음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청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저명한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카알라일(Thomas Carlyle)은
“**길을 걷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구직 과정에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이 나라의 희망인** 만큼,
돌부리에 부딪혀도 그것을 **디딤돌**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련된 **금융회사의 부스**를 돌아보시고
새로운 **금융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며
취업의 기회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융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